美 망명 러시아 스님 "전쟁 반대" 호소

러 불교공동체 지도자 발단 바자로프
모스크바 타임스 단독 인터뷰 통해
러시아 '反우크라이나' 정책 비판

박정현 객원기자

미국으로 망명한 발단 바자로프(Baldan Bazarov) 스님이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전쟁 반대를 호소했다.

발단 바자로프 스님은 러시아 시베리아 부랴티야 공화국의 튼킨스키 지구 불교공동체를 수년간 이끈 지도자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반전(反戰)에 대한 신념으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스님은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한 입장과 전쟁에 찬성하며 러시아에 남은 다른 스님들에 대한 그의 생각 등을 진솔하게 답변했다.

Q. 전쟁에 반대하는 시각을 언제부터 가졌으며 왜 고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나요?

A.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반대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하고, 세계에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많은 국민들이 반우크라이나 감정과 정책을 지지했고, 저는 이것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려대로 사람들은 반우크라이나적인 분노에 휘말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반전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망명 한 발단 바자로프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모스크바타임스

Q.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 24대 캄보라마인 담바 아유셰예프를 비롯한 러시아 스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전쟁에 찬성하는 그들의 입장은 불교 교리와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하지만 저는 담바 아유셰예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모든 캄보라마는 제정 러시아 시대(1721~1917년)부터 러시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해왔고 그 서약 없이는 선출될 수 없었습니다. 담바 아유셰예프도 1995년에 24대 캄보라마로 선출될 때 이 서약을 했고, 이 때문에 정권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Q. 러시아 내에 전쟁에 반대하는 불교지도자들이 있을까요?

A.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칼미키야 공화국(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의 전 최고 라마 텔로 툴쿠 린포체입니다. 그는 반전 입장을 이유로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남아 있는 많은 라마들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을 겁니다.

Q.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2022년 2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빠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 러시아 불교 전통 승가에는 이러한 평화 정신이 전파되지 않나요?

A. 러시아에는 튀바, 칼미키야, 부랴티야 등 불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크게 3곳 있습니다. 칼미키야의 경우 최고 라마는 전쟁에 반대하며 나라를 떠났지만, 다른 라마들은 현재 국가의 규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라마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권력은 변할 수 있고, 스님들은 신도들을 위해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어떤 신도들은 "부처님은 폭력을 금지하고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 행동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도 합니다.

정교회를 국교로 삼은 러시아 제국 시대부터 불교 신도들은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살아왔고, 사찰은 폐쇄됐으며, 그 영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귀 기울일지, 무엇을 볼지 선택할 수 있고, 각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日 사찰엔 역사담은 '청주'가 있다

히가시 혼간지 '마사무네 고칸'
법요 공양물…지역 명물 등극



히가시혼간지에서 판매하는 청주 '마사무네 고칸'.
사진출처=마이도나

불교에서는 음주를 금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출·재가자를 막론한 기본 계율 중 하나다. 그러나 교토의 유서 깊은 고찰에서 당당하게 판매되는 청주가 있어 화제다. 지난해 12월 14일 일본 '마이도나 뉴스'는 교토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에서 판매 중인 '마사무네 고칸(正宗五環)'에 대해 보도했다.

히가시 혼간지 측은 "술을 말하기에 앞서 종조를 기리는 감사의 마음과 역사를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히가시 혼간지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7일간 종조 신란상인(親鸞上人)과 정토진종 본존 아미타불의 은혜를 기리고 찬탄하는 법회 '호온코(報恩講)'를 봉행한다. 신란상인의 기일에 회향하는 법회에서는 염불정진, 법문, 신행 보고 등 법요가 이어진다.

사찰에서 법요 참여자들에게 대접하는 공양물에 곁들여 내던 술이 '마사무네 고칸'이다. 히가시 혼간지의 한 신도 양조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던 술로 총본산만의 술이자 교토지역 명주로 자리매김했다. 기록에 따르면 에도시대 말기인 19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 항상 호온코에 참석한 대중들을 대접하던 술로 전해진다.

2차대전 종전 후 주조가 중단됐으나, 신도와 지역주민들의 간청에 따라 1992년 부활했다. 히가시 혼간지는 호온코 기간 외에도 경내 기념품점에서 마사무네 고칸을 판매하고 있다. 히가시 혼간지 재무부 측은 "호온코 기간 때가 아니어도 사찰을 방문해 정토진종의 가르침을 접하고 마사무네 고칸에 담긴 호온코의 역사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룸비니서 '인도-네팔 문화축제' 개최

불교문화 교류 증진 일환으로
문화공연, 학술 세미나 등 진행

네팔 주재 인도 대사관이 주최한 '제2회 인도-네팔 문화축제'가 지난해 12월 8일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에서 개최됐다. 이 축제에는 인도와 네팔 예술가들의 공연을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과 두 나라가 공유하는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12월 10일 인도의 '인디아 뉴스 네트워크' '뉴스 인디아' 등은 축제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제2회 인도-네팔 문화축제는 두 나라 간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다. 룸비니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불교문화유산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데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크리슈나 바하두르 가르티 마가르



인도 무용단이 선보인 카탁댄스. 사진출처=뉴스 인디아

룸비니 도지사와 프라찬다 빅람 네우파네 관광·교통 관리부 장관, 프라산나 슈리바스타바 네팔 주재 인도 대사관 부대사가 개최사를 전했다.

크리슈나 도지사는 "룸비니는 단순한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도와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며 "이러한 마음을 연결하는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문화축제가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발표했다.

프라산나 주네팔 인도부대사 역시 도지사의 말에 공감하고 "오늘 행사는 국가 간의 깊은 유대감을 기념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불교의 정신적인 문화가치를 창조한다"며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인도와 네팔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공연을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이었다. 인도 시카 샤르마의 8인조 여성 무용단은 불교를 주제로 한 카탁댄스를 공연했고, 이에 화답하듯 네팔 측은 스와잔 라구반시 무용단이 전통 네팔 춤을 선보였다.

또한 룸비니 불교 대학에서 '인도와 네팔의 불교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두 나라의 불교학자와 스님들은 불교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미래 룸비니에서 진행될 관광 및 문화보존 분야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 '中 임명' 판첸 라마 방문 불허

난하이 불교 원탁회의 불참
종교 중립성 유지 목적 사료



기알첸 노르부. 사진출처=티베탄리뷰

네팔 카트만두와 룸비니에서 개최된 '난하이(남중국해) 불교 센젠 원탁회의'에 제11대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Gyaincain Norbu)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중의 관심이 증폭됐다.

티베트 현지 매체 '티베탄리뷰'는 지난해 12월 14일 보도를 통해 22명 이상의 중국불교 스님이 참석한 '난하이 불교 센젠 원탁회의'에 판첸 라마 기알첸 노르부는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기알첸 노르부는 중국 정부에서 임명한 판첸 라마로 티베트불교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됐다. 당초 티베트 불교계는 10대 판첸 라마 탕징 린포체의 후계자로 게두르 린포체를 선출했으나 중국 당국은 그를 구금한 바 있다.

앞서 불교계 안팎에선 판첸 라마가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다. 판첸 라마가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카트만두로 이동, 룸비니에서 열리는 특별기도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네팔 외무부는 12월 12일 "판첸 라마의 네팔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대사관도 "네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판첸 라마를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판첸 라마의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팔 정부는 그간 자국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모든 종파를 존중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티베탄리뷰'는 "이번 사건은 네팔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는 우리 시대가 대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전통적 주제부터 AI나 유전자 복제 등 최신 주제까지, 명료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로 풀어낸다.
데미언 키온 저, 조은수 옮김/신국판/무선/216쪽/값 15,000원

시카고대학 출판부의 유명 시리즈!
무에 대한 탐구
무無는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 비평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데,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408쪽/값 25,000원

한국불교 현대사의 산 증인, 김재영 법사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60년 동안의 신행과 전법 활동,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온전히 담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현대불교사의 소중한 기록이다!
김재영 지음/신국판/무선/5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